

발행인 : 소장 김 문 호

발행처 : (사) 금융경제연구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1301호
 tel: 02)6952-8688
 fax: 02)6952-8700

Issue & Report

Financial Economy Institute
(FEI)NO. 2020-02
(통권 73호)홈페이지
<http://www.fei.or.kr>

금융경제동향

강 다 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국내 외국계 은행의 역할과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시사점

I. 들어가며

2011년 53개였던 국내 외국계 은행사의 지점이 2015년 RBS의 서울지점 폐쇄 이후로 2016년 바클레이즈 은행, 골드만삭스, UBS 은행, BBVA 등의 유럽계 은행들이 국내 지점을 철수하였다. 이후 2019년 호주계 글로벌 투자은행인 맥쿼리은행도 서울지점을 폐쇄하였고 인도 해외은행도 국내 진출 42년 만에 철수하였다.

정부는 국제금융 허브 구축을 위한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지만 최근 국내 외국계 은행 지점들의 국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외국계 은행 자체적으로는 높은 배당률과 수익 위주의 경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외국계 은행의 현황 및 국내 지점 이탈과 국내 시장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계 은행의 바람직한 역할 제고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대해 시사하고자 한다.

* 경제학 박사, tel: 02)6952-8688, e-mail: dykang@fei.or.kr.

II. 국내 외국계 은행 현황

2019년 6월 기준, 국내 외국계 은행 지점은 해외 36개사의 43개 지점이 있으며 국내 현지법인 형태인 씨티은행은 38개 지점, 5개 출장소, SC제일은행은 189개 지점, 5개 출장소가 국내 영업 중이다. 2015년 이후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지점 철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찍이 HSBC은행은 2013년에 소매금융 사업을 접고 10개 지점을 폐쇄한 바 있다.

2013년 이후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국내 소비자 금융 사업을 철수하며 동북아시아 지역 사업을 축소화하는 반면 홍콩 및 싱가포르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2013년 씨티캐피탈을 매각하였고 2014년 SC제일은행은 SC펀드서비스, SC저축은행, SC캐피탈 등을 매각하고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감축하여 국내 사업을 축소하였다.

2018년 12월 기준, 국내 외국계 은행의 총자산은 약 274조원이며 국내은행(인터넷전문은행, 현지법인 포함) 대비 약 11.1%만큼 비중을 차지하여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성 부문에서는 국내 시중은행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이 0.58%임에 비해 외국계 은행의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0%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2018년 12월 씨티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60%, 4.71%이며 SC제일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32%, 4.64%로 나타나 현지법인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총자산순이익률(ROA)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을 가지지만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감소세를 보여준다.

III. 외국계 은행의 국내 영업환경

연이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폐쇄 및 영업 철수 현상은 결론적으로 수익성 악화와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유럽계 은행의 경우 바젤 III 등 글로벌 자본규제 및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로 인해 유럽 내 은행의 규제 변화에 따라 거래 비용 증가가 외국계 은행 지점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2016년 이후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으로 인해 자기자본을 고려한 선물환 거래에 대한 부담과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외국계 은행에게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2017년부터 도입된 외화유동성비율(LCR)은 본점에서 자국의 LCR규제

를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계 은행에 적용되지 않고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200%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자기자본을 고려하여 선물환 거래를 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잔존 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10bp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은행 자체적으로는 재무적인 부담으로 인식된다. 최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계 은행과 미국 Northern Trust 지점 전환 등 신규 진입이 있었으나 유럽계 은행의 이탈과 외은 지점의 국내 영업활동에 대한 한계점은 존재하고 있다.²⁾

아래 <표 1>과 같이 국내 외국계 은행의 업무 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반면 자본금은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과 비교하여 영업기금 중 갑기금은 지점별 3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을기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배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계 은행지점의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fit and proper test)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표 1> 외국계 은행에 대한 국가별 규제 비교

항목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 자본금 불인정 • 갑기금:지점별 30억원 이상 • 을기금:총자본의 2배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 자본금 인정 • 영업기금에 대한 하한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별 인가 별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 자본금 인정
업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대우 원칙 • 91년 이후 소매예금 취급 및 예금보험 가입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A외 국가은행: 기업금융 • EEA 국가은행: 소매예금 수취 현지법인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과 동일 • 영업개시 후 3년 지나 2년 연속 이익 창출 후 인민폐 업무 가능
대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성 심사 없음 • 결산일 2개월 내 재무제표 제출 • 본점 송금 내역 다음달 10일 이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성 심사 有 • 신설지역의 특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성 심사 有 • 소매금융에 대한 규제 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은 적격성 심사가 매우 엄격
배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5%의 배당소득세 납부 • 법인 및 개인투자자 최고 10% 배당소득세 납부
규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LCR 60% • 외화 LCR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주(state)에 한해서 특정 비율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채 비율 25% 이상

2) 정희수(2016), “국내 외은지점의 이탈 원인과 시사점”, 『이슈분석』, 2016년 12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pp.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원화 대출증가액의 35% •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25% • 거액 신용공여 한도 500% • 유가증권 투자 한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15%, 전액 담보 시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여신 한도 없음
---	--	--

* 출처: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6), 경북대학교(2018)

IV. 외국계 은행의 고배당 고수익 정책

외국계 은행의 잇따른 국내 사업 철수 및 수익성 악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은행의 배당성향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내 시중은행의 배당이 20% 수준인 것에 반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은행들은 약 40-50% 수준의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다음 <표 2>에서 외국계 은행의 5여 년간 본사 송금액은 3조4,587억원으로 가장 많이 송금한 은행은 SC제일은행이며 5년여간 송금액이 8,788억원, HSBC은행이 8,303억원, 시티은행이 4,713억원 순으로 송금하였다.³⁾

<표 2> 외국계 은행 본사 송금액 규모(2013-2018)

단위: 억원

은행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기
SC제일은행	665	1,425	4,750	0	760	1,188
HSBC은행	1,687	854	1,274	1,265	1,101	2,122
씨티은행	624	334	509	1,161	1,146	939
JP모건은행	0	245	1,178	1,593	1,628	0

* 출처: 금융감독원(2018)

2018년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배당하기로 한 금액은 총 1조5,461억원으로 전년(2,189억원) 대비 606.3%(1조3,272억원) 증가했다. 위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을 초과한 규모로 두 은행의 2018년 순이익이 총 5,318억원으로 배당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즉 순이익 대비 배당 비중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290.7%로 은행이 벌어들인 금액의 3배가량을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

2018년 씨티은행의 배당금은 9,341억원으로 전년(939억원)보다 894.8%(8,402억

3) 파이낸셜 뉴스(2018), “외국계 금융사 최근 5년간 본사 송금액 7조 육박”, 2018년 7월 8일자 기사 참조.

원)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3,074억원으로 303.9%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SC제일은행도 2018년 5,000억원의 중간배당과 1,120억원의 결산배당을 더해 총 6,120억원을 이익배당금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년(1,250억원) 대비 389.6%(4,870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순이익 2,244억원에 배당성향은 272.7%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배당성향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창출한 수익 이상의 자금이 본국으로 송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두 외국계 은행의 배당을 국내 4대 금융지주사와 비교하면 2018년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은 배당성향을 보인 곳이 KB금융으로 총 7,597억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했다. 2018년 KB금융의 순이익은 3조696억원으로 두 외국계 은행(5,318억원)보다 5배 이상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실제로 KB금융의 배당성향은 24.7%이다. 신한금융은 순이익 3조1,983억원에 배당금 7,530억원으로 배당성향 23.5%를 나타냈고, 하나금융은 배당금 4,504억원(배당성향 19.7%), 우리금융은 배당금 4,376억원(배당성향 21.4%)으로 두 외국계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⁴⁾

사실 국내 은행산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익성에 대한 성과를 통해 사회환원이나 채투자,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은행에 비해 높은 배당성향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에서 이루어낸 성과가 고스란히 본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외국계 은행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동기부여를 가지기 어렵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채투자 및 고용 효과 등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V. 나가며

201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융경쟁력은 2019년 34위로 중위권보다 낮다.⁵⁾ 정부는 금융허브 국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금융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지만 최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의 이탈이 증가하였다. 한편 아시아의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미 다수의 글로벌

4) 이지경제(2019), “씨티·SC제일銀 외국계 은행, 1.5조 고배당”, 2019년 4월 1일자 기사 참조.

5) IMD(2019), 「2019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9.6.

금융기관들이 진출해있다. 더욱이 최근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글로벌 은행들의 국내 유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은행의 국내 진입 시 부담감이 높은 외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목적에 적합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아시아 금융중심지를 위한 위상 확립이 요구된다.

외국계 은행도 한국에 진입하여 수익만 추구하다가 영업을 철수시켜버리는 식이 아니라 현지화 전략을 통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즉, 금융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정합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들이 규제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높은 배당성향은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창출한 수익을 통한 사회공헌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불안감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 금융시장을 단기적인 수익처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및 투자 등을 통해 자국민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자구해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호주, 미국 등과 같이 자국 내 수익의 배당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법리적인 규제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외국계 은행들이 자체적인 수익 전략에 따른 의사결정에 따라 국내 시장을 철수한다면 홍콩에서처럼 과거 업무 취급 경험과 평판 등을 검토하여 해당 금융사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재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패널티를 주는 등의 제재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이 국내 영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시장과 고용 부문에 야기될 불필요한 위기감이나 일부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는 미리 대처방안들도 조치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계 은행들이 원활한 국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필요가 있지만, 외국계 은행 측면에서도 한국에서 영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길 바란다면 재투자, 일자리 마련 등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장기적인 수익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